

■ **자격명: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 **소개말 (시험에 응시하게 된 동기, 시험 준비 기간 등을 서술)**

저는 대학교 3학년 재학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변리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허와 관련된 변리사라는 직업이 자연과학 쪽의 전공을 이용하여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여 좀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타 다른 대기업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직업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시험으로 선발하는 방식인 만큼 실력만 있으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다른 진로보다 제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여타 다른 진로에 비해 전공 지식을 살릴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자연과학 관련 지식과 법학 지식을 모두 활용하여 일을 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준비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듣고 16년 7월부터 1차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18년 7월 기득 기간까지 공부를 하여 그 해에 합격을 했습니다.

■ **차수별, 과목별 준비방법 (공부한 방법, 합격 득점 요인 분석 등을 서술)**

- 1차

1차는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하는 것이 효율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시간 절약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여 7월부터 민법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8월까지 강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다음 9월에는 특허 인터넷 강의를 모두 들었고 상표 강의를 듣기 시작하여 10월에는 남은 상표 강의와 디자인보호법 강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날 들은 강의 내용도 모두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11월부터 법 과목 기본서 회독과 객관식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였고 2월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각 과목의 감을 유지하고 양을 고려하여 하루 중 오전 시간에는 오전부터 오후 일찍까지는 매일 민법을 보았고 오후 일찍부터 저녁 일찍까지는 특허 3, 상표 2, 디자인 1 정도의 비율로 매주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본서 회독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일정 범위를 읽으면 그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임박한 1월 중반 정도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기본서 회독과 10년 치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집은 풀지 않고 기출문제만을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시험 전체에서의 비중에 비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지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물리는 기본적인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였고 생물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월에는 물리인강, 8월에는 화학인강, 9월에는 지학 인강을 들었고 생물의 경우에는 직전에 최종 정리 강의만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루 중 시간 배분을 법 과목에 상당수를 투자하고 밤 8시정도부터 자연과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의 문제집의 경우에는 따로 사서 푸는 것보다는 기본서에 나와있는 문제를 위주로 번갈아가면서 계속 풀었고 시험 직전에는 10년치 기출문제를 뽑아서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 2차 동차

1차 합격을 하고 3월에는 특허, 유기 기초 gs를 수강하고 민소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4월에는 상표, 유기 기초 gs, 민소 사례 강의를 수강하였고 5월에는 특허 실전 gs, 민소 기초 gs를 수강하였고 6월에는 상표 실전 gs, 민소 실전 gs, 유기 실전gs를 수강하였습니다. 동차 기간에는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고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강의를 듣고 꾸역꾸역 따라가려고만 노력하고 제대로 암기가 되지 않았고 힘든 하루의 연속이어서 7월에는 거의 반 포기 상태에서 gs만을 반복하여 풀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 2차 기득

동차 시험을 마치고 9월에 학교를 복학하여 2학기를 다니고 나서 11월에 발표가 날 때쯤 기득 수험 기간에 대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12월 말부터 민소 쓰기 스테디를 구해서 매주 2번 정도씩 동차 기간의 민소 관련 gs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쓰고 서로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월, 2월에는 gs를 수강하지 않고 민소, 특허, 상표 개념 위주로 기본서를 회독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 유기를 최대한 끝내자는 심정으로 유기도 어느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3, 4월에는 기초, 특허 실전 gs를 수강하였고 5월에는 특허, 민소 실전 gs, 6월에는 상표, 유기 실전 gs를 수강하였습니다. 7월부터 시험보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총정리를 반복하여 했습니다. 과목별 비율은 아침에는 유기, 오후에는 민소, 밤에는 특허, 상표의 비율을 두어 공부를 하였는데 유기의 경우 3월부터는 양을 줄여 일주일 중 3일 정도만 투자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 과목별 공부방법

특허의 경우 단문 및 판례를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기본서 위주로 회독 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시간 절약을 위해 기득 기간에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본서에 있는 중요판례를 따로 정리하여 뽑아서 이동 시간에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상표의 경우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본서 회독과 동시에 판례집도 회독하였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판례집의 경우에는 집에 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상표 또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중요판례를 따로 정리하여 뽑아서 이동 시간에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상표의 경우 특허보다도 판례 원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판례 원문을 그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소의 경우 법 과목 중에 가장 고득점을 하기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였고 학설과 판례를 세트로 묶어서 최대한 통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기의 경우 P/F 제도로 바뀐 만큼 기본서와 스미스, 맥머리, 존스 정도의 전공서만을 가지고 반복하여 문제를 풀었고 gs도 3년 치 정도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 자격 취득 후 진로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혹은 예정 진로에 관해 서술)

저는 합격 후 1년 정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휴식을 취했고 10월 정도부터 특허 법인에 입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 워라벨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반 기업 인하우스 변리사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 과목이 대부분 법학 과목인 만큼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넓은 범위에 대해 흥미를 가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로스쿨에 입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학 공부를 미리 어느 정도 하여 익숙한 만큼 로스쿨에 가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조언 등 (수험 기간 중 하루 일과, 스트레스 또는 슬럼프 극복 방법, 응원의 한마디 등을 서술)

동차 기간에 16년도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할 수 있다는 다짐하며 금메달을 딴 것을 보고 저도 힘들 때마다 할 수 있다 말을 계속하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 것이 불안함을 벗어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마인드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8:30에 학교 도서관에 도착하여 10:30까지 매일 공부를 하였습니다. 1차 기간에는 일요일 하루는 풀로 쉬었고 2차 기간에는 금요일 저녁, 주말에는 탄력적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쉬는 날에는 영화 감상을 자주 하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학교 근처 맛집에서 밥을 먹기로 정하고 매주 그날을 기다리며 버텼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공부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최대한 공부 외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였고 잡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차 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기득 때 고생을 많이 하는 만큼 동차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그 다음 해를 생각하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며 힘든 수험 기간을 버티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